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진정한 가톨릭교회의 위상과 숙제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38년 전 1984년,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성녀의 탄생은 참으로 기쁘고 가슴 벅찬 은총이었습니다.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갔고 다양한 순교 역사 연구와 함께 그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강조되었습니다. 많은 성당들과 영세자들이 103위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주보로 삼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에 그분들의 벽화가 그려지고 성화(聖畵)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명실상부 순교자들의 후예요 수많은 성인 성녀를 둔 자랑스러운 한국 천주교인들이었고 동시에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높은 기개와 탁월한 신앙적인 모범을 온 세상 만방에 알리고 한국천주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외방 선교회 선교사 신부님들이 파푸아 뉴기니에 파견되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성인으로 하는 성당을 세우고 그곳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삼았다는 소식이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 전해 지기도 했고, 모두들 한국천주교회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선교 사제로 사목을 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에콰도르(Ecuador)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교구의 합의하에 성 안드레아 김대건(San Andrés Kim)이라는 성당을 봉헌하고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갓을 쓰고 도포 자락 휘날리는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聖像)을 세웠습니다. 전혀 다른 조상의 뿌리, 이질적인 문화, 완전히 상반된 신앙의 역사를 넘어서 이제 남미(南美) 땅에도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순교 정신이 심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에콰도르 원주민 성당의 주보성인이 한국 성인이라는 사실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복장의 주보성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해가 잘되지 않았습니니다.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당신 나라의 성인”이라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전 세계 모든 가톨릭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공경 받으셔야 할 성인이신데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 바오로, 테레사는 남미 토종 에콰도르 성인 성녀란 말인가?

남미 원주민들은 스페인 식민지 과정에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를 흘린 아픔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간 이들의 용맹한 신앙 정신과 삶의 모범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하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땅의 문화와 신앙의 역사, 민족성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은 사실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캐나다 사목 방문을 <참회 순례>라 칭하면서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과거 가톨릭교회가 범했던 과오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모습은 너무나 필요한 우리 교회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 신자들은 용맹한 신앙정신을 지켜낸 수많은 순교 성인 성녀들, 무명 순교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한국천주교회의 위상은 수많은 순교자와 성인 성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기보다는,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양태현 그레고리오 신부 | 생림선교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지혜 3,1-9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39
복 음	루카 9,23-26

숨겨지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

신호열 요셉 신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8월 23일 토요일 아침. 이날은 민화위와 정평위가 함께하는 평화순례가 있는 날이었다.

우리는 산청으로 향했다. '산청' 하면 지리산의 고장이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곳이다.

버스 두 대에 올라탄 사람들은 오랜만의 외출이어서 그런지 밝고 상기된 얼굴이었다.

잔뜩 찌푸린 날씨와 여름 특유의 습하고 무더운 느낌이 몸에 와닿았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이었다.

바쁘게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곳은 낯선 곳이고 뭘 추모한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산청과 함양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곳에 거창하게 추모공원을 만든 것인지 궁금했었다.

전시관의 영상실에 들어선 우리는 조용히 자리 잡고 안내원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을 듣는 내내 입이 다물 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땅 갈고 씨부리고 잡초 뽑고 농사짓던 순박한 이들에게 일어난 극악무도한 범죄에 분노를 넘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다.

1951년 한국 전쟁 중 국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열세에 몰렸던 전세가 바뀌게 되었다. 국군은 북으로 진군을 해야 하는데 남쪽에 남아있던 인민군들은 지리산에 모여들었다. 일명 빨치산으로 불렸던 그들을 두고 진군할 수 없었던 국군은 공비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지리산 일대 산청(금서면 가현, 방곡마을) 함양(휴천면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한데 모아놓고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었다. 이때 희생된 민간인이 705명에 달했는데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국의 군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사건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무런 죄없이 평화롭게 농사짓던 자신들의 땅에서 어린아이들, 남편과 아내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이들의 통곡과 원한을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책임자들을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을 이 사건을 지휘한 책임자들은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다가 금방 풀려나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이때 마무리 짓지 못했던 역사의 과오는 그 이후로 반복되었다.

1980년 광주에서 국군에 의해 시민들이 사살되고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떠들었고 수많은 시민을 죽인 자들은 대통령도 되고 국가의 요직에 중용되었다.

얼마 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의 말대로 북한 잠수함이 침투해서 어뢰를 쏘고 도주하였다면 이것은 국가비상사태일 것이다. 각국의 군이 함께 훈련하던 상황에서 북한이 몰래 침투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다. "작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없다."

그렇다면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그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책임자들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고 승진을 거듭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도인가? 역사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과 역사를 무시하는 권력에 둘러싸여 있다. 역사를 바로 알고 반성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산청, 함양에서 국군에 의해 살해된 순박한 그들의 피맺힌 한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며 죽어간 수많은 시민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다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던 그 젊은 영혼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을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미래를 향해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아안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본다.

너무 사적私的인 기도

윤선희 드보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의 내용은 무엇일까?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을 것이다. 보이는 면은 노력할 수 있다. 열심히 미사 참례하고, 봉사활동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면은……. 가끔씩 강론을 들을 때나 책을 읽을 때 짓눌리는 기분이 든다. 보이는 활동으로 채울 수 없는 것, 자라지 않는 마음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어느 책에서 자녀의 합격이나 자신의 승진 등을 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은 곤란하시겠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누구의 행운이 누구의 불운이 되는, 현실적인 바람에만 매달리는 데 대한 염려가 섞인 말일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원기도는 흔히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폄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필요가 우선하고 절박하지 않을까. 나의 기도 또한 대부분 개인적인 바람들로 채워진다. 한순간의 곤란함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 돌아보기도 싫은 처신을 용서해 주십사 청하는 기도, 말을 옮기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은 기도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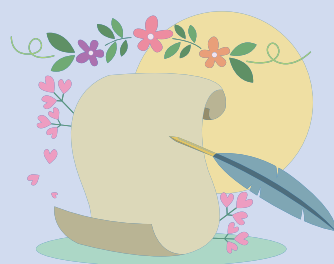
브루그만은 시편을 해설하면서 시편 속에 고백된 내용은 “수치스럽거나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들일 수 있으나 “화자들은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있다고 했다. 그는 시편이 세상의 “어두움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두움이 있는 그곳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라 했다. 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원한의 문구들을 모두 주님께 아뢰며 그분께 맡겨드리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소진되지 않는 끈덕진 소망’을 간직했다. 기도드리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오롯이 ‘주님께 속’한다.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기도는 늘 일방적이고 나의 필요에만 급급했다. 자라지 않는 마음은 바로 이런 편향성 때문일 것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이 기도 중에 청하는 빵은 나의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이라 했다. 개인적인 기복에만 매달린다면 주님 사랑에 닿을 수 없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두 손 가득 받기를 기대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하고 “소망을 실현해 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지상의 모든 것에서 초연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영적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고 했다. 너무나 내 마음을 읽는 말이다. 나를 채우는 데만 골몰한 기도와 활동이 부끄러워졌다.

“신앙이란 혼돈 한가운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브루그만은 말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 발을 뺄 조용한 곳이 아닌 바로 세상 속에서, 데레사 성녀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껏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전하지 못한(Untold) 진심”이 전해지도록(Told)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전하지 못한 진심(The Truth Untold), 2018. 방탄소년단

외로움이 가득히 피어있는 이 garden(가든, 정원), 가시투성이, 이 모래성에 난 날 매었어.
너의, ... 푸른 꽃을 꺾는 손, 잡고 싶지만,
내 운명인걸. ... 너에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순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But I know.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걸. 숨어야만 하는걸. 추한 나니까.
난 두려운걸. 초라해. 결국엔 너도 날 또 떠나버릴까. 또 가면을 쓰고 널 만나러 가.

커다랗고 잘 꾸며진 나만의 정원이 있다면, 그곳은 낙원일까요? 예, 아니오,를 구분하는 것은 정원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정원이라도 그것이 ‘나만의’ 정원이라면, 내가 고립되어 있고 닫혀 있다면, 그 정원은 외로움의 정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그에 따른 권력을 가지는 것, 곧 나의 정원을 키우는 일입니다. 크면 클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뚫린 가슴 구멍이 오히려 커집니다. 나만의 정원 그 큰 공간에, ‘나’는 작고 ‘너’는 없어서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생기 없는 황량함, 그 정원은 결국에는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래성을 가지려고 기를 쓰고 달려온 나는, 그 모래성에 스스로를 족쇄 채운 모습입니다.

큰 정원이 나의 ‘존재감’을 보장해 주리라 여겼습니다. 가진 척, 있는 척, 잘 사는 척했지만 더욱 초라해집니다. 세상 앞에서 힘을 잔뜩 주지만 ‘뽕’입니다. 뽕 뒤 나의 초라함을 들킬까 두렵습니다. 턱은 한없이 앞으로, 어깨는 한없이 위로, 반면 가슴은 한없이 뒤로 숨고 중심은 아래로 주저앉습니다.

그런 나에게는 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나에게나 그들에게나 중요한 것은 검사님, 의원님, 박사님, 교수님, 사장님, 예쁜님, 잘생긴님, 건물주님, 갑님, 신부님? 같은 ‘내밀만한 명함’이지, 본 이름에는 관심 없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나에게에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들이대는 수많은 가시에 상처받은 나는, 내가 숨고 또 나를 돋보이게 할 만한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키워왔습니다. 가시들에 찢려 거칠고 모가 난 나는, 그 모를 더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남부럽지 않은 가시로 중무장했습니다. 나를 방어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키운 가시가 이제는 세상을 위협하고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 줄 수밖에 없으며, 닫히고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그런 내 모습을 숙명 같은 운명,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모습으로 단정해버립니다.

시작은 누구 때문이라 ‘남 탓’ 하겠지만, 결국 모든 건 지금, 여기,의 ‘내 탓’입니다. “내 탓이오” 하지 못한다면, 그 가시로 덮힌, ‘너’를 차단하는, 그래서 내가 외로운 나만의 정원은 영원히 굳게 닫혀 있을 겁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과시할 정원을 가진 나’라는 가면 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원, 그런 가면이라도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혐오할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But I still want you.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원해.)

어쩌면 그때, 조금만, 이만큼만, 용길 내서 너의 앞에 섰더라면, 지금 모든 건 달라졌을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원합니다. 세상을 많이 움켜쥐면 ‘너’도 ‘가질’ 수 있다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재물과 최고의 지위를 가져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는, ‘나’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삐까뻔쩍 무화과잎, 화려한 정원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과대포장으로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너’가 아닌 ‘너 가면’을 쓴, 딱 그런 ‘삐까뻔쩍’에 눈먼 누구일 겁니다.

‘그때’와 ‘만약’을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같은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한때의 선택이 아닌 매 순간 이어지는 삶의 자세 말입니다.

이 정원에 숨어든 널 봤어.

And I know (나는 알아), 너의 온긴 모두 다 진짜란 걸.

Show you ME. Give you ME (너를 ‘나’에게 보여줘. 너를 ‘나’에게 줘.)

‘너’가 내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나는 나를 충분히 숨길 만큼 영역을 넓히고 중무장을 했건만, ‘너’는 열린 마음으로 닫힌 문을 뚫어내고, 온기로 가시를 녹여 버렸습니다. 보잘것없다 여긴 알몸,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가장 큰 힘인 줄 몰랐습니다.

가면 쓴 세상 앞에 더 두터운 가면으로 응수했던 나, 하지만 이제 ‘척’하지 않는 진짜 사람을 보고 접한 나는, 그런 ‘너’ 앞에 온전한 ‘나(ME)’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떤지 보고 싶고, 사람과 교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외로움의 정원에 핀 너를 닮은 꽃 주고 싶었지. 바보 같은 가면을 벗고서.

할 수 있는 건, 정원에, 이 세상에,

예쁜 너를 닮은 꽃을 피운 다음, 니가 아는 나로 숨 쉬는 것.

지금껏 삶의 목적이라 여기며 쌓아온 것, 그것은 사실 가면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은 외로움입니다. 만드신 그대로 “보시니 좋았다” 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여준 ‘너’를 닮게, ‘나’도 이제 ‘나됨’, ‘사람됨’을 피워내고 싶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압니다. 내 안에 들어온 ‘너’는 가면 뒤에 숨은 ‘나’의 본모습을 압니다. 가면을 내 모습이라 여겼던 나는, 인격으로 다가온 너를 통해 비로소 ‘나 인격’을 발견하고 ‘나’로 숨 쉬고자 합니다. 너를 닮은 꽃이란, 너의 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너를 너 그대로 드러내는 너처럼, 나를 나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나다운 모습,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너를, 닮은 꽃입니다. 새롭게 피워낸 ‘나 꽃’으로, 세상에서도 ‘나 꽃’으로 살고, 가면 뒤에 숨은 또 다른 이들의 정원에 ‘나 꽃’을 전하고 싶습니다.

난 울고 있어. 사라진, 무너진, 홀로 남겨진 이 모래성에서. 부서진 가면을 바라보면서.

‘But’(그러나) I still want you. ‘And’(그리고) I still want you.

잔뜩 독이 올라 울음마저 메말랐던 나, 기껏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 내린 허망함의 울음이기도 하지만,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 버린 안도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초라함에 두려워하면서도(but), 무화과잎 가면을 쓰고 너를 ‘가지길’ 집착했던 ‘나’,

이제, 눈을 뜨고 용기 내어(and), 알몸 인격을 걸고 너를 ‘얻고자’ 소망하는 ‘나’입니다.

하느님 ‘너’께서 세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너’께서는, 성령의 기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기억을 살아가는 교회, 하느님의 백성, 그 한 명 한 명은 이제, 자신만의 정원에 스스로를 가둔 이들 안에, ‘너’로서, 스며들려 합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이민의 날 행사 파견미사

일시: 9월 25일(주일) 15: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건진성사

일시: 9월 25일(주일)
장소: 중앙동성당
집전: 총대리 최봉원(야고보) 신부

교구/본당

교구 성경사목부 30주년 위원회

일시: 9월 20일(화) 14:00
장소: 교구청

공소지도자 연수

일시: 9월 22일(목)~23일(금)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 2차

일시: 9월 25일(주일) 09:30
장소: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청년 신앙강좌

일시: 9월 25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폴로 다락방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19일(월) 13:00~15:00
장소: 상평동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성독)

일시: 9월 24일(토) 10:00~16:30

장소: 부산 본도명상의집
준비물: 성경/ 참가비: 3만 원
문의: 권 벨라뎃다 010-3271-0766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가을음악학교

일시: 10월 7일(금)~8일(토) 1박 2일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과목: 발성, 지휘, 그레고리오, 오르간
신청: 9월 28일(수)까지(숙박은 선착순 70명)
수강료: 19만 원(마감 이후 20만 원)
문의: 051-519-0474, www.bcmusic.or.kr

제32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1)신문, 출판/ 2)영화, TV/ 3)라디오, 인터넷/ 4)교구, 수도회 출판작
대상: 2021년 10월 16일~2022년 10월 15일 사이 발표된 작품
접수: 10월 15일(토)까지 우편, 메일(mscm@cbck.kr) 접수
문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http://www.cbck.or.kr 참조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제108차 이민의 날 행사

일시: 9월 25일(주일) 10:30~17: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실내체육관
미사주례: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주최: 천주교마산교구창원이주민센터
참여대상: 외국인주민(노동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540여 명

교구 성령기도회

9월 19일(월) 본당 사정으로 기도회 없습니다. 010-5072-5612

문의

청년 성령기도회 일정 안내

일시: 9월 21일(수) 19:30 (매주 수요일)
장소: 교구청 별관 지하
●기도회 미사(매월 첫째 주), 치유기도회 및 찬양기도회(매월 셋째 주)
●묵주기도, 성체현시, 찬양, 강의, 안수, 성체 강복(19:30~22:00)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청년 성령기도회를 매주 수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WYD)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로마에서 시작된 세계청년대회(WYD)는 전세계 150개국 이상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계청년대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의 신앙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 2023년 7월 22일(토)~8월 9일(수) 18박 19일
순례(스페인 일대), 교구대회(포르투갈 일대), 본대회(포르투갈 리스본)

지원자격: 1988~2004년생, 6차의 사전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 20명 선발

예상참가비: 450~500만 원(최대 100만 원 교구 보조)

신청: 교구 청소년국 홈페이지(http://youth.cathms.kr), 9월 25일(주일)까지

선발일정: 10월 15일(토) 14:00 교구청-설명회 및 면담
10월 24일(월)-참가자 확정 개별 통보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2023 WYD 공식 홈페이지: www.lisboa2023.org

수도회 성소자 모임

한국외방선교회

문의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비고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개발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파크 골프 채



최고의 골프기능
특별할인 기회

NAVER에서 아리랑파크
골프채로 검색 선택 후
010-3599-0745로
연락주세요.

파크 골프 스포츠
대표 김요셉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

강봉군 크레센시오(용원본당)

매년 여름휴가가 되면 작은 고민이 생긴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아내의 잔소리를 덜 듣게 되지?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 등등...

매년 맞이하는 즐거운 휴가인 동시에 매년 하게 되는 좀 귀찮은 고민이다.

직장인으로 누리고 싶은 최고의 휴가는 집콕(?)!

외부와 적당히 차단한 절대적 안식의 공간인 집에서, 러닝과 팬티 차림에 위대한 연장인 리모컨만 들고, 집 안에 나만의 동선으로 뒹구리로 휴가를 다 보내고, 휴가 마지막 날 후회하는 것인데...

휴가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 내내 약간의 고민에 움츠려 있는데, 아내가 공소 순례를 가자며 책을 한 권 건넨다. 난 신앙심이 깊은 신자가 아니다. 공소에 대해선 사전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지라, 별생각 없이 대강 훑어보니 진해 용원에서 제일 가까운 공소인 사봉공소가 무난한 것 같아 “그래 가자, 어디부터 갈까? 가까이 있는 사봉공소로 가자.”

기다려라!

가자는 소리에, 내가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1분, 아내가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30분.

29분을 못 참고 투덜대면, 드라이브 중 좁은 차 안의 분위기 짜~해지고, 주전부리도 사라진다. 아내가 29분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인데, 투덜대면 말짱 도루묵 된다.

사봉공소 도착, 책에 적힌 대로 기도를 하고 공소를 한 바퀴 둘러보며 무두묘의 순교자에 대한 내용을 찬찬히 읽고 순교자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진해 용원으로 복귀.

갈 때 마음이랑 올 때 마음이 달랐다. 나의 짧은 글 솜씨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냥 달랐다고 할 뿐이다.

마음이 통했다. 휴가 기간에 공소 순례를 해보자.

나는 이동 동선을 짜고, 아내는 이것저것 준비하여 반려전을 동반한 부부의 공소 순례가 시작되었다.

첫날 진해에서 출발 하동의 공소와 산청의 생비량공소를 방문하고 지리산 지역의 엄청난 폭우를 만나 진해로 돌아왔다.

다음날은 진해에서 산청에 있는 공소를 순례 후 복귀, 부모님 기일이라 하루 쉬고, 함양 거창에 있는 공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점심은 거창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초등학교 그늘에서 형님네에서 가져온 제사 나물과 탕국으로 비빔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남해에 있는 두 공소를 방문하고 의미 있는 여정의 막을 내렸다.

공소를 방문했을 때, 내가 느낀 것과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겐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햇빛, 흐림, 비, 창밖의 경치, 분위기 맞춤 음악, 반려전, 아내 그리고 함께 있는 나!’ 순례 중 아내가 종종 물어본다. “피곤해?” “전혀 안 피곤해!”라고 대답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2공소를 12시간 약 500km 정도 이동을 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 며칠의 여행에 혹시 힘들지 않을까 아내의 얼굴을 살폈으나, 기우였다.

여행은 누구랑 어디로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좁은 차 안에서 며칠을 함께한 사람! 함께 공감한 장소! 그리고 함께한 기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 지면을 빌어 불편하고 긴 공소 여행을 함께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을 할 수 있게 공소 순례를 기획한 교구의 어떤 분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최선, 신의 최선-이승우의 『허기와 탐식』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이 모든 게 신의 뜻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묻는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힘든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정말 신은 있는가. 이승우의 『허기와 탐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품이다. 그의 연작 소설집 『사랑이 한 일』에 실려 있는 이 작품은 늙고 눈이 먼 이사악과 그의 맏아들 예사우의 이야기이다.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이사악이 어느 날 맏아들인 예사우를 불러 말했다. “아들아, 네 아버지는 이제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사악의 장자인 예사우는 동생인 야곱을 섬기도록 운명 지워져 있었다. 그런데도 신의 뜻과 달리 왜 이사악은 예사우를 축복해 주겠다고 했을까. 작가 이승우는 그 이유를 이사악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아버지가 자신을 제단에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경험은 이사악에게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 충격으로 어린 이사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복형 이스마엘을 찾아 광야로 간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마엘이 전해주 야생의 음식을 먹게 된다.

그 순간 이사악은 자신이 그날 먹은 형의 음식으로부터 아마도 평생 동안 놓여나지 못하리라는 걸 예감했다. 사는 내내 허기에 시달리며, 참지 못하며, 참지 못한 채 참으며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예감대로 되었다. 그는 탐식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사악은 늙을 때까지 예사우가 사냥해 온 야생의 음식을 먹고 또 먹는다. 이렇게 끝없는 허기와 탐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사악만이 아니다. 만이의 권리를 빼앗기고 광야로 버려진 이스마엘, 그의 어머니 하가르, 그리고 예사우. 그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뜻에 의해 불행에 빠진 이들이다.

신의 뜻을 ‘인정’하지만 ‘이해’는 할 수 없기에 그 괴로움으로 탐식에 빠진다. 그저 끝없는 허기에 맛도 모르고 탐식한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최선을 넘어서는 최선, 법과 도리를 뛰어넘은 신의 섭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악은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광야에 내쳐진 이복형 이스마엘과 달리, 제물이 되었던 그 자신과 달리, 예사우만큼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의 뜻 앞에서 이는 부질없는 것이어서 결국은 운명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다.

이 바꿀 수 없는 신의 뜻(최선을 넘어서는 최선) 앞에서 예사우는 소리 내어 울며 절망한다. 그런 그에게 이사악은 “너는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른다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라고 말한다. 애써 힘을 기른다는 것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신의 뜻을 ‘이해’하는 단계, 참신앙의 세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힘들고 불공평한 삶에서 비롯되는 허기와 탐식에서 벗어나 신앙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묘사하는 예사우의 삶은 이렇다.

그는 애써 힘을 기름으로써, 즉 자기에게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된 일들을 참음으로써 아우의 멍에에서 벗어났다.